

장성택의 방중 성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임 강 택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2-36

장성택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방중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실세로 부상한 장성택의 공식적인 대외 행보라는 점이다. 둘째, 최근 경제정책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게 지원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향후 북한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김정은 체제하의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장성택 부장의 방중기간 동안, 북한 언론도 방중대표단의 동향을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하는 등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장성택의 방중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일거수일투족에 주목하였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경제특구 개발이라는 공식적인 방중 목적에 충실한 ‘실무형’ 행보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도차 다음날 나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개발협력연합지도위원회’ 제3차회의에 참석하여 두 경제지대의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이어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방문하여 해당지역 정부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장성택의 정치적 행보는 16일 베이징으로 돌아온 이후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고, 다음날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를 예방한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장성택 부장의 예방을 받은 두 지도자들은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던 김정은의 방중이나 대규모 차관 및 경제지원 등과 관련한 언급은 보도되지 않았다. 실제로 거론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내용의 성격상 비밀유지를 위해 보도하지 않은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지난 18일, 5박 6일의 방중 일정을 마친 장성택 일행은 어떤 보따리를 들고 귀국길에 올랐을까?

먼저 그동안 진척이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 포기 소식까지 들렸던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가 정상적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중국 지도부의 경제협력 의지를 재확인한 점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3차 개발합작연합지도위원회에서 중국 측이 제시한 협력원칙이 기존의 ‘정부 주도(政府 主導)’에서 ‘정부 인도(政府 引導)’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점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방중을 통해서 북한의 로켓발사로 인해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가 정상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문제 해결에 필요한 중국 자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지원이라는 선물보따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6.28조치’로 알려진 ‘새로운 경제관리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조치의 성공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의 지원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중국은 최소한의 성의 표시는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성택 부장의 귀국 보따리에 선물만 담겨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지도부의 선물에는 ‘변화 요구’라는 꼬리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중국 언론은 장성택 부장의 원자바오 총리 예방 사실을 보도하면서, 원자바오 총리가 장성택 일행에게 북·중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북한 측이 개선해야 할 사항을 5가지 제시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여기에는 법률·법규의 개선, 상관지구간의 연계와 협조 강화, 시장시스템을 적용하여 토지·세금분야에서 좋은 조건 마련, 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세관과 품질관리 서비스의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개선 요구는 중국 정부가 기업의 투자 유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점과 함께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중국 측의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자본의 대북한 투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선 요구 중에서 북한을 가장 고민스럽게 할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은, 시장시스템의 적용이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토지와 세금분야에 국한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의 투자와 무역거래에 시장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기업들의 거래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정부가 부당하게 간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대외무역과 외국기업과의 협력사업에 보다 자유로운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관리 체계를 계획이 아닌 시장메카니즘으로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고민의 깊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귀국길에 오른 장성택 부장의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된다.